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조경계획 및 설계에 대한 연구

김연금* · 이규목**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건축도시조경학부

A Study on Landscape Architecture Planning and Design as Communicative Action

Kim, Yun-Geum* · Lee, Kyu-Mo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With more and more people paying attention to substantial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is presented as a practical strategy and an index of Korean democracy. In this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is essential. Nonetheless, the true meaning of "participation" is not used properly because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it correctly. The concept of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s "the action or attempt of ordinary members of society for affecting on the result of decision making." Based on this concept, participation is accomplished through conventional means and as a form of mobilization in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Most of the theories on public participation in landscape architecture are technical theorie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at planning and design of landscape architecture be understood as a communicative action that aims to enable stakeholders to reach a consensus through communication. This study offers the framework of theory to understand and practice planning and design of landscape architecture as a communicative action, after reviewing communicative action theory and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Results suggest that communicative action theory should be accepted in landscape architecture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instrumental rationality -- the same way planning theory accepted this theory -- and to join the culture of experts focusing on the artistic truth and the culture of life of the world. In addition, accepting communicative action theory enables the acquisition of the instrumental effect and social learning effect and the making of social capital. This study also suggested prerequisite for using the method. There should be change in the social institution and in individual action. In addition, the method is composed of three steps: creating the atmosphere for communication; communicating, and; reaching a con-

† **Corresponding author** : Kyu-Mok Lee,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 +82-2-2210-2455 E-mail : kmlee@uos.ac.kr

sensus among stakeholders. Finally, rais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theory presented in this study requires the accumulation of know-how through trial and error.

Key Words : Participatory Design, Communicative Action,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Landscape Architecture

1. 서론

최근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부터 '참여 민주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실천적 전략이자 지표로 제기되고 있다(강병호, 1999; 김대환, 1997). 노무현 정권이 '참여 정부'를 표방하는 이유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취지는 대의제의 민주주의의 논리를 확장시키는 한편, 시민사회 스스로 공론장을 창출하여 시민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참여의 개념은 "사회의 보통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참여는 사회구성원들 사이 그리고 사회구성원과 직업적인 의사결정자 사이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역할을 한다(김대환, 1997).

지방자치는 생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적정규모의 정치영역으로 시민참여의 직접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 참여민주주의 가장 직접적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낙관을 준다(김만홍, 1997).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환경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도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되는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사업 명칭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로 정하고 있고 계획 및 설계과정과 시공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199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마을마당 조성사업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건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에서도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적극 활용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전문가가 주민들의 관심(interest) 혹은 선호(prefer-

ence)를 묻는 형식적인 면과 아래로부터의 목적추구 없이 위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원(mobilization)' 형태의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 및 설계는 어떤 규칙들을 따라야 하며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등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Sommerville, 2000). 일례로 Hester(1999)는 '1. 듣기, 2. 목적설정, 3. 분석과 자료목록 작성, 4. 커뮤니티 개입, 5. 종합, 6. 요구하는 활동환경 그리기, 7. 특이성들을 고려한 형태 만들기, 8. 개념적 표준을 발전시키기, 9. 계획 스펙트럼, 10.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기, 11. 책임을 전가시키기, 12. 시공 후 평가'라는 12단계로 구성되는 참여 디자인 과정을 제시하는데, 이는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법이지만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Jones(1999)도 참여적 접근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역적 규모로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와 이해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주민참여에 대한 태도에서 상대방은 협력자이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적 대상이다. 이는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는 도구적 행위로서 주민참여 조정계획 및 설계가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소통행위 이론을 수용하여 의사소통 행위로서 주민참여 조정계획 및 설계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의사소통 행위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의 과정에서 구현되는 의사소통 합리성에 근거하는 행위이며 의사소통 패러다임으로서의 선회는 고독한 주체가 객체와 대면하는 구도로부터 언어를 중심으로 질문과 대답, 언표와 반박, 입론과 반론이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적 관계로의 선회이다(Harbermas, 1981b).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정분야에서는 어떠한 태도로 의사소통행위이론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이론이 실천에 있어 던져주는 시사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 조정 공간의 계획 및 설계를 의사소통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버마스의 소통행위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며 아울러 계획이론에서는 어떠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버마스 이론을 수용해 소통적 계획이론을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조정분야에서의 소통행위 이론 수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연구 사례를 통해 앞서 제시한 이론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소통행위 이론

하버마스의 소통 행위이론 중 본 연구의 주요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되는 이론의 등장 배경, 소통적 합리성 및 소통적 행위에 대한 개념, 소통적 행위의 전제들인 타당성 주장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하버마스의 소통 행위이론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적 조정 계획 및 설계' 방법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프래그머티즘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인 베버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정을 '합리화'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합리화의 주된 동력을 목적합리성에서 찾았다. 그는 이러한 합리화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성에 기초한 합리화가 자율적 해방사회의 실현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는 애초의 긍정적 전망과는 달리 과학적-기술적 합리성에 의해 생활세계가 식민지화되었다고 비판한다.

하버마스는 근대성에 관한 성찰적 통찰을 수행함에 있어 베버의 합리화 이론을 기본적 틀로 수용하나 근대의 합리화에 대한 베버의 통찰이 목적합리성 측면에 과도하게 편중해 있다(Harbermas, 1985)고 비판한다. 이

에 하버마스는 포괄적 합리성 개념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제안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인식적-도구적 합리성 측면', '도덕적-실천적 합리성 측면', '미학적-표현적 합리성'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합리성 개념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는 상호이해의 과정에서 구현되는 의사소통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이해도달의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의사소통행위에서 상호이해는 단순히 의미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제기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청자의 비판적 검증을 핵심요소로 내포한다. 타당성 주장은 다음 네 가지 유형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화자가 발언한 것이 이해 가능한가라는 '이해가능성'(Verständigkeit)의 요구로 나머지 세 가지 타당성 요구의 기본전제이다. 둘째는 그 발언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내용이 참인가라는 진술의 '진리성(참됨)'(Wahrheit)의 요구이고, 셋째는 화자의 규범적 발언이 승인된 규범적 맥락 속에서 정당인가라는 언어행위의 '정당성(적합성)'(Rechtfertigkeit)의 요구이다. 넷째는 화자의 주관적 표현이 진실인가라는 표현의 '진실성'(Wahrhaftigkeit)의 요구이다. 진술의 진실성은 객관적 세계에, 언어행위의 정당성은 사회적 세계에, 표현의 진실성은 주관적 세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행사 직원에게 유럽여행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물었는데, 그 직원이 "예술여행코스 150만원 듭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은 '예술여행코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여행사 직원은 '예술여행코스'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기가 말한 것이 이해 가능하다는 말을 정당화할 수 있다. 또한 여행사 직원의 말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사실적 진술내용이 참이라는 두 번째 타당성 주장을 전제하고 있고, 한편 고객은 그 직원이 유럽여행 전문가로서 상당하는 것을 상황에 적합한 행위로 여길 것이다. 이를 세 번째 타당성 주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직원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성실하게 믿고 있다(네 번째 타당성 주장)(김재현, 1996). 위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타당성 주장이 청자에게 근거 있는 것으로 수락될 때 이성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소통적 행위이론은 또한 프래그머티즘 학자인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았는데 Mead는 불확실한 현실은 사람들 간의 상징적 상호 작용

용을 통해서 안정되게 매순간 구성된다고 본다. 인간에게는 정신(mind)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장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평가하고 미래를 상상으로 시연(imaginative rehearsal)을 해본 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정신의 독특한 특성이 '성찰성(reflectivity)'이다(Turner, 1997).

앞의 네 가지 타당성 요구의 내용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적 조정계획 및 설계에 대한 윤리적 비판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프래그머티즘에서 강조하는 성찰성은 현실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시한다.

2. 소통적 계획이론

계획이론에서 소통행위이론은 지난 몇 십년간 도시 계획이론을 지배했던 종합적 계획이론(synoptic planning theory)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를 두는 종합적 계획은 계획 행위를 가치중립적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선택과정으로 파악하는 도구적 행위론도 간주하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활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계획관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가치중립적 계획이 불가하고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 기능이라기 보다 논리적·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이해갈등의 조정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주장이다(이수장, 1989). 더불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김영모, 1988)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한 이론으로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등이 제시되었다. 하버마스의 소통행위 이론을 수용한 소통적 계획이론(communicative planning theory)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시되어졌다. 소통적 행위론은 비판이론이 계획실천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Forester를 필두로 많은 이들이 계획이론에서 소통행위이론 수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나 접근방식

들은 조금씩 다르다.

먼저, Forester(1983)는 계획과정은 본래적으로 소통 행위이나 계획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의사소통 왜곡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는 하버마스의 소통행위 이론은 정치적·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왜곡들을 피하고 실천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하버마스 이론은 윤리적 측면에서 공개적 토론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듯 보이나 방법적 매뉴얼을 제시하지는 않으므로 하버마스 이론의 프래그머티즘 측면은 소통행위 이론의 실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는 참여자들간의 대화를 통한 성찰은 서로간의 분쟁(conflict) 해결의 기준이 된다고 보며 이를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하고 있다(Forester, 1999).

Forester의 견해를 받아들여 Innes(1998)은 도구적 이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환상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소통적 행위론은 패러다임 속에서 정보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또한 Innes과 Booher(1999)는 계획에서 합의 형성 과정을 평가하는 틀은 기계론적인 뉴턴식의 세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적응적 체계(complex adaptive systems)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해 소통의 과정은 계획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가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습과 변화, 사회적, 지식적 자본 같은 비가시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논증한다.

Sager(1994)는 목적들이 결정되어지는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목적들이 외부에서 주어지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았던 기존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소통적 계획을 제시한다. 더불어 프래그머티즘 관점에서 계획진행 중 참여자들의 실천상의 성찰(reflection-in-action)은 상황의 애매함과 불확실함을 인정하지 않는 엄격주의(rigidity)와 상황에 휘둘리는 임시방편주의(opportunism)를 막아낸다고 본다.

도구적 이성을 토대로 하는 도구적 행위로서의 계획과 소통적 행위로서의 계획, 즉 소통적 계획(communicative planning)에 근거하는 연구들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도구적 계획과 소통적 계획의 비교

구분	도구적 계획	소통적 계획
중심 내용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수단들을 강구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에서 동의되어진 해결을 강구
사회, 정치적 관계에 대한 태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존성을 강화하기 / 사회적 관계들에서 이끌어내기	의미 있는 정치적 참여와 자치권을 키워내기/ 사회적 정치적 관계들을 재생산하기
상황 또는 맥락에 대한 태도	맥락에서 자유로운 기술적 문제 해결(context-free technical problem-solving)	맥락 대응적 실천적 행위(context-responsive practical action)
주어진 문제에 대한 태도	문제들은 잘 규정되어 있고 안정적이며 문제해결(problem-solving)이 중요	문제들은 잘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 문제 재규정(problem-reformulating)이 중요
결과와 과정에 대한 태도	결과와 성취 중시 / 직선적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제공	과정과 공평함 중시 / 다양한 가능성들을 묻는 과정과 참여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중시하며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함
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들을 모아서 정보를 처리하기(processing information)	중요하고 상호작용적인 정보들을 모으기, 관심을 형성하기(shaping attention)
참여에 대한 태도	다양한 견해의 갖는 사람들의 참여를 방해의 근원으로 취급하기	다양한 견해의 갖는 사람들의 참여를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로 다룰 것

위와 같은 소통적 계획을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이상적 대화 상황이 요구하는 이해 가능성, 진술의 진리성, 언어행위의 정당성, 표현행위의 진실성이라는 네 가지의 타당성 요구와 관련지어 요약하자면, 명제적 진리성이 다른 타당성 요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실현된 기존 계획들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네 가지 타당성 요구들 사이의 균형을 성취하자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Forester는 정치,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규범적 정당성의 축소, Innes는 명제적 진리성의 불균형적 강조를 문제제시하고 이를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극복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3. 조경분야내 소통행위 이론의 수용

1) 이론수용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계획이론에서는 도구적 이성만을 사용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왜곡과 그에 따른 왜곡된 합의에 주목해서 소통행위 이론을 살피고 실천적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그렇다면 조경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측면에서 소통행위 이론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경은 계획분야와는 달리 객관적인 '계획'과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설계'라는 이중적 측면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이루어졌던 POE(post-occupancy evaluation) 연구들에서 이용자들의 선호와 설계가의 미적 표현과는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듯(Kapper and Chenoweth, 1994), 전문가와 대중과의 취향의 간극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계행위가 갖는 창의성을 중요시해서 대중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조경가들도 있다. 어떤 조경가들은 대중의 참여를 "전문가적 위험(professional hazard)"이나 시간소비를 보고 있다(Thompson, 1999). Haag는 개스웍 파크(Gas Work Park) 계획과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대중과의 협의 과정을 묘사하면서 "디자인에서는 절대적으로 대중 참여가 없었다. 사람들이 많은 열정을 갖고 있고 자신의 도시를 사랑한다고 해서 공원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니다. 공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공원에서 순수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주민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Jory, 1991).

그러나 건축과 마찬가지로 근대 이후 문화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발전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 일반대중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예술(Harbermas, 1981a)이기도 한 조경은 사회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옴스테드의 근대 도시공원 발명도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옴스테드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는 것은 단지, 수동적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문화에 전반적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창조자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조경진, 2002). 그리고 톰슨의 주장처럼 조경가가 조경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믿는다면,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들도 인정하려는 노력들을 해야(Thompson, 1999)하는 것이다. Short(1989)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대중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의 민주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경계획 및 설계에서 주민들을 비롯한 관련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사회적 책무라는 당위적 이유로 중요한 것만은 아니며 조경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솔한 장소 만들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장소 만들기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말살하기 쉬우므로 인간 자신과 인간문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진솔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합의와 참여를 통해 상향식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이규목, 2002).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꺼리는 조경가의 자세들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나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 속에서 조경은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 소통적 행위를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조경은 도시계획이론과 마찬가지로 인지적-도구적 합리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태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의사소통행위를 수용해야 하며 한편 예술적-표출적 진실성에 중점을 두는 조경 전문가 문화와 일반인들의 생활세계와의 접합의 측면에서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행위자는 자신이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표현적 진술이 진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런 진술 역시 상호주관적 검증과 인정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수용의 긍정적 효과

앞에서 조경실천을 소통적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 이

유들과 접근태도를 제시하였다. 본 단락에서는 그렇다면 조경계획 및 설계라는 행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통적 계획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소통과정이 갖는 다양한 효과들을 검토할 때 수단적 효과, 사회 교육적 효과, 사회자본형성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단적 효과란 소통과정 자체가 결과물의 질 향상과 추후 결과물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지칭하며 가장 직접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소통의 과정은 수단적 측면에서 '정보의 교환'과정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양식화된 조사방식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나 기대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며(Thompson, 1999), 주민에게는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살필으로써 전문가 작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고 주민들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결과물들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Sanoff, 2000; Wates, 1985). 결과적으로 정보 교환의 효과는 최종결과물의 질을 증진시킬 확률이 높은 것이다.

사회적 교육의 효과는 기능적 효과에 비해서 가시적이지는 않으나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가치와 지식, 견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소통과정은 사회적 학습과정이다. 사회적 학습과정 학습속에서 참여자들 간에는 정보교환을 통한 지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견해와 태도도 변화하게 된다. 지식의 변화를 1차적 변화라고 한다면, 견해와 태도의 변화를 2차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²⁾. 사회학습의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익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이익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게 된다(Innes, 1998).

Innes and Booher(1999)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내포(estuary)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5년간의 합의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과정이 진행되어짐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식을

함께 나누려 하는 등 참여자들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다시 진정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주민참여 과정이 반달리즘을 감소시키고 공원 관리에 대한 자발성을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힌 기존 연구 결과들에서 이러한 사회적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Thomson, 1999).

사회적 자본의 형성도 의사소통과정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효과라 할 수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은 뵘에르 부르디외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르디외(Bourdieu)가 개인들 사이에서는 발견되는 연결망(network)에 초점을 두어 사회자본을 분석했다면 퍼트남(Putnam)은 거시적 차원에서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고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에 있어서 사회 자본이 갖는 역할을 분석하였다(소진광, 2002). 사회자본은 현대사회에 만들어진 개인주의문화의 병폐를 치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또한 적극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선'이며(Putnam, 1993), 발전현상의 가치체계인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금융자본, 물리적 자본, 인간자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소진광, 2002).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는 사회적 자본축적에 효율적이다(Putnam, 1993).

의사소통적 조경실천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는 외국의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그라운드 워크(Ground Work)는 공원 같은 외부공간 조성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촉매제로 여긴다(Duxbury, 2002).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속에서 주민들 간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개선은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다른 공동사업을 진행할 여지들을 만들어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북부 도심에 있는 '비영리단체 예술과 자애의 마을(Village of Arts and Humanities)'의 경우 1986년 예술가 Lily Yeh가 지역의 한 버려진 땅을 공공공원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것이 이 단체의 설립의 계기가 된다. 주민들은 3년여에 걸친 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능력을 발견하고 단체를 설립하여 예

술 활동을 매개로한 지역 활성화운동들을 벌이고 있다. 단체는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예술학교와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특산품으로 공예품을 만들어내면서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개 이상의 빈 공간을 공원, 정원, 녹지공간, 과수원 등으로 변경하였다(http://www.villagearts.org/m_about_us.html).

3) 조경에서 소통행위 이론 실천의 필요조건

앞에서 제시한 효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적 계획 및 설계가 실천되기 위한 조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시적 차원인 사회 제도적 측면과 미시적 차원인 개별 행위자, 특히 전문가의 역할측면에서 필요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없다면 개별행위자의 노력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며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더라도 개별행위자가 따라 주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련제도는 위에서 아래로의 의사결정 경향이 강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가능하지 않았다. 이에 토의적 의견 및 의지형성의 절차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강병호, 1999). 일본의 경우 1992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의 전망과 실현방안에 관한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즉 '시정촌 마스터플랜제도'를 창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최선주, 1996), 자치체 차원에서는 세타가야구가 '세타가야 마츠쿠리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소공원의 정비, 도시경관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뉴욕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구운영협회 BID 제도를 갖고 있다(문화연대, 2002).

이런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일반대중의 '참여'가 중요시되는 현시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단지 조경 분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Fischer(2000)는 시민의 평등, 대중의 여론,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는 전문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며 지난 30년간 지식체제와 관련 기술들을 지배해온 전문가들의 엘리트주의와 거만함은 일반 대중의 반감을 샀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가 집단

은 엘리트들과 대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과 공공선에 기여하기보다는 엘리트들과 스스로의 권위, 권력, 부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관심이 있어왔고 혹은 전문가들은 자신의 역할을 선생님이나 교육자로서 수용함으로써 대중시민(mass citizenery)과 멀어졌다는 비판받는다. 이에 그는 전문가와 대중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촉진자로서의 전문가는 일반대중이 스스로 배우고,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서술에서 Sanoff(2000)에 따르면 전문가의 직업이 더 이상 최종적이고 바뀔 수 없는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용자와의 끊임없는 접촉 속에서 해결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조경분야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Donadie는 조경가는 설계도를 그리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해주는 데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박정옥, 2000). Thompson(1999)은 디자이너들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분과들 간의 협의를 구하는 중개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참여의 시대 소통적 행위로서의 조경을 실천해야 하는 조경가는 최종 결과물을 제시하는 해결자에서 벗어나 촉진자, 해석자,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공동작업을 통해 계획수립 등을 추진해가는 방법인 워크숍을 환경계획 및 설계에 최초로 도입한 로렌스 헬프린은 긍정적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미후네야스미치, 2002). 더욱이 워크숍을 집단적 창의성을 끌어내는 방안으로도 적극 활용하였다는 데서 그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다.

Ⅲ. 의사소통적 조경계획 및 설계

앞의 소통적 계획에 대한 이론고찰에서 보았듯이 소통적 계획을 주장하는 이들은 프래그머티즘에서 이론의 실천성을 찾으려 한다. 프래그머티즘에서는 세상은 복잡적이고 변화무쌍하다고 본다. 이에 소통적 계획을

주장하는 이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엄격한 절차적 규칙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떻게 변화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수용해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성찰성은 변화 대응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 또한 의사소통진행에 대한 절차적 규칙이라기보다 의사소통이 성찰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조성을 위한 지침들이라 할 수 있다.

1. 의사소통적 조경계획 및 설계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적 조경계획 및 설계의 진행과정을 '1. 의사소통환경조성, 2. 의사소통, 3. 합의도출'의 세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의사소통환경조성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의사소통자, 즉 관련자들의 관계 및 역할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통의 방법과 절차들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의사소통'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경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며 관련자들은 다양한 매체와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상호주관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의사소통 환경 조성

소통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일 것이다. 그러나 촉진자와 중재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을 도와 주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행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자들이 구성되어진 후 소통자들은 논의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과정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을 실행하는 과정 그 자체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김찬호, 2002)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각각의 경우에 맞는 의사결정과정과 전략들을 수립하여야 한다(Luz and Weiland, 2001).

2) 의사소통 및 합의도출

소통자들은 앞 단계에서 설정한 과정을 따르되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변화와 유연적 결과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Schön(1983)은 상황에 대한 되묻기(back talk)와 참여자들 간의 되묻기(back talk)는 예기치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 성찰성을 이끌어낸다고 보고 있고, Forester(1999)는 '질문(questioning)'을 통한 '관심 형성(shaping attention)'을 숙고적 실천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과정 중에 사용되어지는 매체(media)는 구술적(verbal)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bodily)일 수도, 지도, 그림 등의 물리적 도구일 수도 있다.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고 하였듯이 매체 그 자체가 하나의 몸짓으로서 의사소통의 내용을 강하게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므로 의사소통의 성찰작용을 고려하여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 Al-Kodmany(1999)와 같은 연구자는 주민들에게 슬라이드로 대상지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지 개선안에 대한 스케치를 미리 작성하여 보여주는 방식은 상호 교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참여자들 앞에서 직접 포토샵(PhotoShop) 같은 이미지 조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근래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 인터넷은 투명한 정보 제공과 폭넓은 토론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더불어,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질문하기 위해서 또는 일반인들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기 위해서 워크샵, 디자인 게임, 공청회같이 이미 개발되어진 '참여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1970년대 말 Rosener는 39가지의 주민참여기법들을 정리하였고 Wilcox는 커뮤니티 디자인에 있어서의 주제들과 방법들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A에서 Z까지 정리하였다(Thompson, 1999)

2. 사례 검토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도심 속의 자투리 공간을 소공원화 하였다³⁾. 대상지가 되는 가회동의 자투리 공간은 1980년대에 좀도둑 및 불량배로부터 동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방법초소를 건립하였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후 방법체계의 변화로 방법초소 기능이 상실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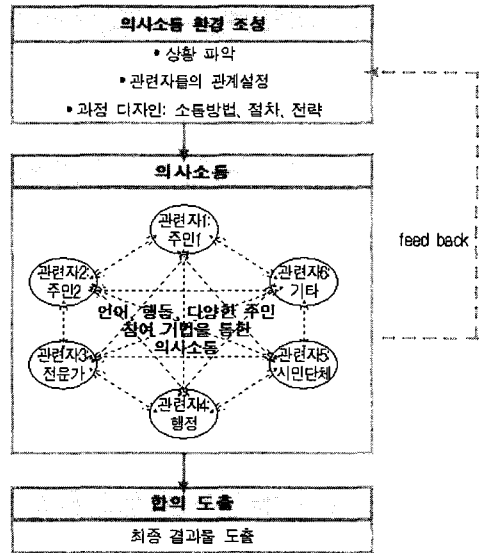


그림 1. 의사소통적 조정 계획 및 설계의 진행 과정

모래함 적재 및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방치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2002년 6월 지역의 통장을 비롯한 몇몇 주민과 시민단체인 '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는 지역민들에게 대상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본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대상지 소공원화에 대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다.

의사소통환경조성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시민단체, 주민의 대표격인 통장, 전문가인 본 연구자들이 협의체를 형성하고 이 속에서 전체과정을 진행시키면서 통장을 매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진행 절차는 면담을 통한 대상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설계안 작성, 설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시공으로 구성하였다. 전략으로는 1.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필요한 정보들과 활동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수시로 토론하여 결정하면서 진행한다. 2.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관련 정보들과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3.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그들의 이해에 귀 기울인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이 의사소통환경이 조성된 후 본격적인 의사소통이 시작되었다. 먼저 협의체는 대상지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공유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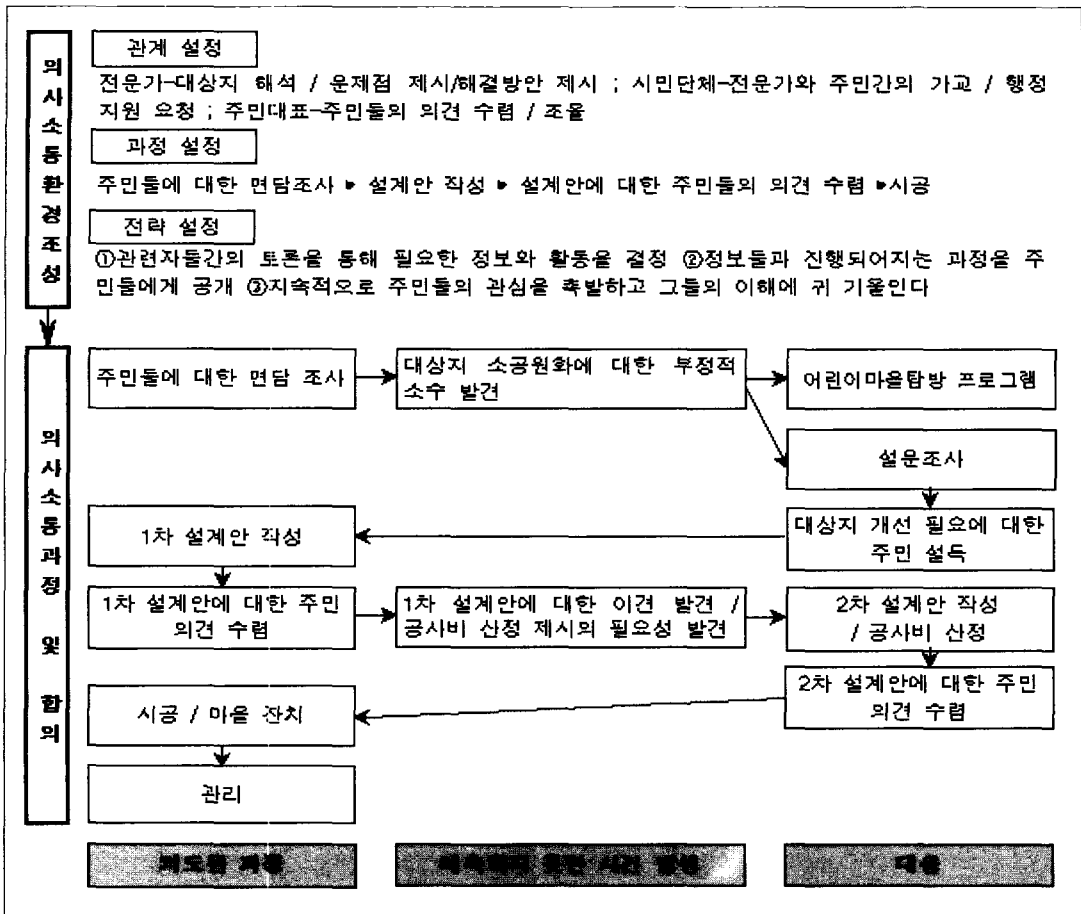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사례의 진행과정

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던 중 비용의 문제와 관리의 문제로 대상지를 소공원화 하는데 부정적인 소수 주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소공원화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을의 외부 공간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조사와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어린이들의 마을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서 주민들은 대상지를 비롯한 마을이 지저분하고 마을 내 작은 휴식공간이나 담소공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어 대상지 소공원화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설계안을 작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평면도와 입면도 외에 현황사진에 다 변화된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

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벽화를 그릴 경우 이왕이면 원서동이라는 이미지와 맞출 필요가 있다. 나무가 심겨질 경우 잘 자랄 수 있는 것인지? 모래함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위기가 밝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작은 비용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를 물어왔고 이 과정 속에서 마을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졌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설계안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2002년 11월 11일부터 총 5일간 시공이 이루어졌다(그림 3, 4 참조). 시공이 끝나는 날에는 주민들이 모여 이후 공원관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협의체는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주민들에게 주요 사항들을 알리고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지속하였고 예

기지 못한 문제 상황들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여



그림 3. 조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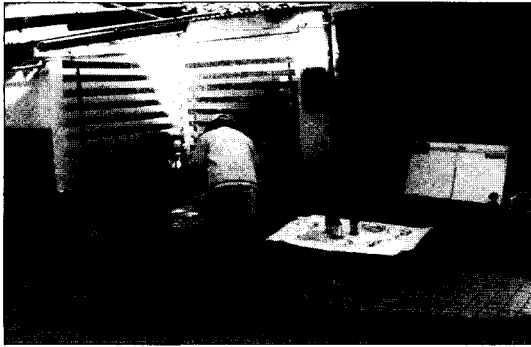


그림 4. 조성 후

추후의 진행방향 및 내용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는 등 성찰적 실천을 하였다(그림 2 참조). 시공이 이루어진 후 2003년 주민 스스로 청소를 하고 나무를 심는 등 공원을 관리하고 있어(한국 일보, 2003. 3. 25) 사회적 학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발언의 '이해가능성'(Verständigkeit), 진술의 '진리성(참됨)'(Wahrheit), 언어행위의 '정당성(적합성)'(Rechtfertigkeit), 표현의 '진실

성'(Wahrhaftigkeit)이라는 4가지의 타당성 주장에 비추어 사례 연구의 의사소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주민들은 4가지 타당성의 차원에서 협의체의 의견에 수긍이나 반박을 나타냈고 반박의 경우 협의체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조정분야에서의 진정성 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에 대한 지침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찾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내용은 이론적 고찰과 의사소통적 조정계획 및 설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소통 행위이론과 소통적 계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조정분야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소통행위 이론을 수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경은 소통적 계획이론과 마찬가지로 인식적-도구적 합리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태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수용해야 하는 반면 미학적-표현적 진실성에 중점을 두는 조정전문가 문화와 생활세계와의 접합의 측면에서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수용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소통적 계획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소통의 과정이 갖는 다양한 효과들을 검토할 때 조정실천행위를 의사소통 행위로 실천함으로써 수단적 효과, 사회 교육적 효과, 사회자본형성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고찰 마지막에서는 소통적 계획 및 설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측면과 개인의 행위적 측면에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표 2. 4가지 타당성 주장에 따른 사례 연구의 평가

4가지 타당성	주민들의 반응 및 요구	협의체의 대응
발언의 '이해 가능성'	1차 설계안에서 모래함은 어디에 설치되는가?	벤치 아래 설치됨을 알림
진술의 '진리성'	① 적은 금액 내에서 그림의 내용대로 시공이 가능한가? ② (토심이 얇은데)나무는 잘 자랄 수 있는가?	① 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시 ② 작은 나무를 심을 것을 알림
언어행위의 '정당성'	대상지를 소공원화 하는 것이 필요한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공원화에 대한 정당성 제시
표현의 '진실성'	벽화 내용이 지역의 특색과 맞는가?	수정된 설계안에서 벽화는 생략됨으로써 표현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가 없게 됨

다음으로 이러한 인식적 트대 위에서 실천 방법을 제시하여 실천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엄격한 절차적 규칙 제시는 의사소통이 갖는 성찰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의사소통이 성찰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조성을 위한 지침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소통환경조성과 의사소통, 합의 도출이라는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과 방법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의사소통행위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적 대상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서로 필요로 하는 협력자이며 의사소통 행위에서는 결과물 산출보다 상호이해를 중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정분야에서의 주민 참여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한 노하우의 집적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례만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사례연구를 통한 이론과 실천 방안의 정교화가 요구되어진다.

- 주 1. Luz와 Weiland(2001)는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 조정 계획 및 설계에서의 주민 참여는 일반인에게 조정계획이 진행되어지는 바를 알리는 형태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참조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법률적으로 상세하게 규정된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전제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소통 과정(communicative process)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계획 및 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하고 있다.
- 주 2. Agris와 Schön(1976)은 실천 상황(practical situations)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단일 환상 학습(single loop learning)'과 '복합환상학습(double loop learning)'으로 구분하였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단일환상학습(single loop learning)이라 한다면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목적을 재검토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복합환상학습(double loop learning)이라 한다. 자신과 타인과의 이해관계를 발견한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면 하는 것이 복합환상학습에 해당 된다.
- 주 3. 자세한 내용은 김연금 외(2003)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소공원 설계 및 조성. 한국조경학회지 31(1): 78-89 참조.

인용문헌

1. 강병호(1999),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의 이론 연구: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이고 사회학적인 연구.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 논문.
2. 김대환(1997)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와 한국 사회"). 서울:창작과 비평사. pp. 15-48.
3. 김만홍(1997),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와 한국 사회"). 서울:창작과 비평사. pp. 60-88.
4. 김연금, 성종상 외 (2003)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소공원 설계 및 조성. 한국조경학회지 31(1):78-89.
5. 김영모(1988) 점증적 계획이론의 과제. 대한부동산학회 6(0): 55-64.
6. 김재현(1996), 하버마스 사상의 형성과 발전 (김재현 등, "하버마스의 사상"). 서울:나남출판.
7. 김찬호(2002) 도시는 미디어이다. 서울:책세상.
8. 문화연대(2002)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울:시지락.
9. 미후네 야스미치 + 도시 및 마을만들기 연구체(2002), 커뮤니티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 서울:보성각.
10. 박정욱(2000) 우리시대의 설계언어: 프랑스(15) -피에르 도나디유, 경관의 창조적인 보전을 위하여. 환경과 조경 151: 55-65.
11. 소진광(2002)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2년 21세기 국가발전과 국토 환경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pp. 29-47.
12.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 경관. 서울:열화당.
13. 이수장(1989) 계획이론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지방행정연구 4(4):51-65.
14. 조경진(2002)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도시공원관에 대한 재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26-37.
15. 최선주(1996) 일본의 주민참가와 마지크쿠리. 시민교통 창간 준비 4호
16. 한국 일보. 2003. 3. 25.
17. Agris, C., and D. Schön (1976) Theory in Practice. New York: University of Oxford Press.
18. Al-Kodmany(1999) Using visualization techniques for enhancing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sign: proces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Landscape & Planning 45 : 37-45.
19. Duxbury(2002) Dongwork at 21. Landscape Design 306 : 21-23.
20. Fischer(2000) Citizens, Experts, and the Environment.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1. Forester, John(1983) The geography of planning practi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163-180.
22. Forester, John(1999) The Deliberative Practitioner. Cambridge, Mass.: MIT Press.
23. Harbermas, J.(1981a) Modern and Postmodern Architecture. In the Süddeutsche Zeitung of 5-6 December.
24. Harbermas, J.(1981b)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서규환 외(역) 소통행위 이론. 서울: 의암출판, 1995.
25. Harbermas, J.(1985) Die Neue Unübersichtlichkeit. Suhrkamp.
26. Hester, R. T.(1999) Juror Comment: What Makes Participation Exemplary?, in places 14(1):34-37.
27. Innes, Judith(1998) Knowledge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4(1):52-63.
28. Innes, Judith, and David E. Booher (1999) Consensus Building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Journal of American

- Planning Association 65(4):412-423.
29. Jones, Stanton(1999) Participation and community at the landscape scale, *Landscape Journal* 18(1):65-78.
 30. Jory, J. (1991)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Redefining the Garden*. New York:Abbeville Press.
 31. Kapper, and Chenoweth (1994) Landscape Architecture and Societal Values: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Landscape journal* 19(1):149-155.
 32. Luz, F., and U. Weiland (2001) Wessen Landschaft planen wir?, in *Naturschutz und landschaftsplanung* 33(2/3): 69-76.
 33. Putnam, Robert(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35-42.
 34. Sager, Tore(1994)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Brookfield USA:Avebury.
 35. Sanoff, Henry(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John Wiley&Sons, Inc.
 36. Schön, D.(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Basic Books.
 37. Short, John R.(1989) *The Humane City*. 백영기(역), 인간의 도시. 서울: 한울. 2000.
 38. Sommerville, Shiona L.(2000) *Communicating Landscape Architecture*. A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Graduate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Guelph.
 39. Thompson, Ian H.(1999) *Ecology, community and delight sources of values in landscape architecture*. London: E & FN Spon.
 40. Turner, Jonathan H.(1997)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정태환 외(역), 현대 사회학 이론. 서울:나남출판, 2001.
 41. Wates, N.(1985) Co-op Consolidation. *The Architectural Review* 177(1058):57-64.
 42. http://www.villagearts.org/m_about_us.html

원 고 접 수 : 2003년 10월 31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12월 1일

3인익명 심사필